

지상파 DTV 채널 재배치 시행 6월 12일 오후 2시, 전라권부터

채널변경 경계지역의 혼신 최소화와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채널 재배치가 6월 12일 부터 시행된다. 이번 채널 재배치는 시청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을 3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전라권은 6월 12일 오후 2시, 경상권은 7월 17일 오후 2시,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은 10월 16일 오후 2시에 시행한다. 채널 재배치의 영향으로 안테나를 통해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재배치 이후에 일부 TV 채널이 안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리모컨을 이용해 수신채널을 검색하고 적합한 채널을 설정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디지털 방송 채널 재배치가 이루어진 지역의 시청자는 일부 또는 모든 TV 채널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시청자가 스스로 TV 채널 재설정을 할 수 있도록 채널 재배치 일정 및 재설정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전라권	경상권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013년 6월 12일 14:00	2013년 7월 17일 14:00	2013년 10월 16일 14:00

미래창조과학부의 위탁을 받아 DTV KOREA는 TV, 라디오, 전광판

공익광고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디지털 방송 채널 재배치 일정 및 채널 재설정 방법을 안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지율과 영향력이 높은 TV 공익광고를 통해 채널 재배치로 인한 시청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채널 재설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어려울 경우 디지털방송콜센터(124)에서 안내하고 있다. 디지털방송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야간 및 휴일은 ARS를 운영하며 채널 재배치일 부터 2일간은 상담원 근무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향후 민원폭증에 대비해 응대에 차질이 없도록 채널 재배치일 부터 3일 동안 상담인력을 최대 100명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공시청 설비나 기술적 취약 계층(노인, 장애인)의 경우 TV 시청권 보장차원에서 기술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라권 지역 채널재배치 지원을 위해 DTV KOREA는 신중섭 팀장을 파견했다.



DTV 활성화 자문단 공시청 지원현장 및 남산 송신소방문



DTV KOREA와 방송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인사들로 구성된 '시청자를 위한 지상파 DTV 활성화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지난 5월 24일, 채널 재배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남산 송신소에서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19세대 이하 공시청 설비 개보수'현장을 방문했다. 자문위원들을 맞이한 KBS 강동구 소장은 디지털 방송의 송신과 중계링크, 채널 재배치 추진 현황 등 방송이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10월 시행되는 수도권 채널 재배치를 위한 안테나와 송신기의 시스템 변경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뒤이어 자문위원들은 DTV KOREA가 추진 중인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청 설비 개보수 현장(종로구 원서동 궁전 아트빌)을 방문했다. 공사를 신청했던 이영규씨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화면이 흐려지거나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었는데 현재는 선명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자문위원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수신환경개선을 더욱 더 활성화해야 하며, 지상파 방송의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청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방송사별 여건을 고려하되 다채널 방송의 조기 실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화섭 사무총장은 "지상파 방송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재 중요한 이슈와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자문단의 가장 큰 역할이며, 각계 현장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시청자의 미디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지상파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지난 3월 14일 출범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DTV KOREA 정화섭 사무총장, 숙명여자대학교 강형철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김광호 교수,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노영란 사무국장, 광운대학교 문상현 교수, 민주언론시민연합 이희완 사무처장,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제19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DTV KOREA(회장 김환영)는 6월 14일(금), 63빌딩 57층에서 제19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사무총장의 성원보고를 시작으로 개회선언, 의장인사, 안건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이사회 및 정기총회의 주요 안건은 MBC 김종국 사장의 이사예선, 2012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심의·확정, 지상파 방송사 대표 4인을 DTV KOREA의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는 정관개정, 2013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보고 등 4건이다.

아울러 DTV KOREA가 운영하는 「지상파 DTV활성화 자문회의」도 이날 오후 4시 DTV KOREA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 안건 1 MBC 김종국 사장, 이사 예선(안)
- 안건 2 2012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 안건 3 DTV KOREA 정관 개정(안)
- 안건 4 2013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www.dtvkorea.org

‘웹 표준화’ 홈페이지로 시청자에게 한 발 가까이 지상파 방송 플랫폼 활성화 위해 콘텐츠 보강

DTV KOREA가 시청자에게 지상파 방송 플랫폼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접 수신방법을 쉽게 소개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개방형 플랫폼인 워드프레스(Word Press)를 활용하여 제작됐다. 워드프레스란 웹사이트를 만들고 관리하기 쉽게 도와주는 저작도구로, 오픈소스(Open Source)와 웹 표준을 상징하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각기 다른 브라우저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요즘, ‘웹 표준화’된 DTV KOREA의 새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로로 접근을 하더라도 홈페이지의 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전달이 가능하다. 새로 구축된 홈페이지는 이미지와 플래시를 활용하던 기존 제작 방식을 벗어났다. 블로그 형식으로 바뀌면서 콘텐츠 업로드 및 수정이 용이하고, 새로운 게시물이 홈페이지 전면에도 노출된다. 홈페이지를 찾는 시청자는 최신 정보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미지 기반의 콘텐츠가 주를 이뤄 포털에서의 검색을 통해서도 노출이 어려웠지만, 텍스트를 활용하여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에서도 원하는 정보에 대한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 DTV KOREA는 홈페이지의 데이터를 네이버, 구글 등의 포털 사이트에 개방하여 ‘디지털 안테나’, ‘공시청 설비지원’ 등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을 위해 시청자들이 자주 찾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DTV KOREA는 새 홈페이지의 구축과 함께 내부 콘텐츠 또한 대대적으로 개편·추가 했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지상파 플랫폼의 중요성’과 ‘지상파 디지털방송 수신 안내지도’이다. 지상파 방송이 제공하고 있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와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해외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 활성화의 필요성, 디지털 방송의 장점, 다채널 방송 추진경과, 디지털 전환 과정, 채널 재배치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보강했다.

지상파 디지털방송 수신 안내 지도도 볼 수 있어...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율을 증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콘텐츠는 ‘지상파 디지털방송 수신 안내지도’이다.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수신 상태를 보다 알기 쉽게 홍보, 설명할 수 있도록 전파분포 상황을 지역별로 세분화한 것으로, 작년 8월 전국 지자체 및 동사무소, 마을회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배포한 바 있다. 기존 시청자들은 해당 지역에 로컬방송이 어떻게 수신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시청자들이 직접수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시청자가 직접 수신 환경을 점검하며 지상파 직접 수신을 위한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수신 지도를 제작해 송·중계소 방향으로 직접 안테나 설치를 하고 수신점을 찾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홈페이지 개편과 맞물려 ‘지상파 디지털방송 수신안내지도’의 온라인 버전을 제작해 시청자들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DTV KOREA의 콘텐츠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와의 연동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SNS로 가져갈 수 있다. 이를 통해 DTV KOREA의 콘텐츠가 보다 넓은 범위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홈페이지 구축으로 더 많은 시청자들이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DTV KOREA는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을 위한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고

채널재배치! 시청자들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박진우
KBS 기술전략국 팀장



작년 말 '아날로그 방송 종료'라는 대규모 사업이 종료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지털전환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디지털의 전환은 금년에 계획된 채널 재배치까지 마무리 되어야 완성이라 볼 수 있다. 채널 재배치는 6월 12일 호남권, 7월 17일 영남권, 10월 16일 수도권/강원권/충청권 순으로 3차례 진행하고 시각은 모두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다.

채널재배치란 무엇인가?

채널재배치란 아날로그 종료 후 흩어져 있는 DTV 채널을 한곳으로 모으는 작업이다. 아날로그 방송은 채널 2~60번을 사용하다가 디지털로 전환과정에 DTV를 14~69번에 배치하였다. 아날로그가 종료 되면서 2~60번 사이에는 여유채널이 생겼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56개(14~69번)를 사용하고 있는 DTV 채널을 38개(14~51번)으로 모으고 나머지 채널들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방송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방송사들은 운용하고 있는 송신시설 중 채널재배치 대상 시설들의 채널 변경작업을 해야 한다. 방송사들이 운용하는 송신시설 중 약 70%가 채널 재배치 대상이다. KBS만 하더라도 29개의 송/중계기와 TV간이중계기 724개의 채널

변경이 필요하다. 채널 변경작업은 크게 송신기와 안테나 계통으로 나누어 한다. 송신기 쪽은 상당 부분의 모듈 교체와 조정이 필요하고, 안테나 계통은 컴바이너(송신출력 합성기)/케이블 교체와 안테나의 위치 조정 등이 필요하다. 지역별 정해진 날짜와 시각에 동시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 송신기의 채널을 미리 변경해 놓고 정해진 시각에 예비송신기로 절체하는 방식으로 재배치를 추진 중이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채널재배치를 위해 KBS는 작년부턴 뉴미디어테크놀로지본부내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시청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직접수신을 하고 있는 시청자들은 채널 재설정을 해야 한다. 아날로그 때 채널 재배치를 했다면 물리적 채널(주파수)과 실제 채널이 동일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채널이 변경되더라도 시청자가 보던 채널에서 방송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채널로 변경하다 보면 수신되는 채널이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의 경우는 복잡하다. 디지털방송에서는 가상채널(Virtual Channel)을 TV신호에 실어 보내주기 때문에 시청자가 한번만 채널 설정을 해 놓으면, 물리적 채널과 상관없이 KBS1은 9-1번, KBS2는 7-1번, MBC는 11-1번, SBS는 6-1번, EBS는 10-1번

으로 수신이 된다. 하지만, 채널이 바뀌게 되면 채널을 아무리 변경해도 수신되는 신호가 없어져 버린다. 결국 TV 리모컨으로 채널 재설정을 해야만 다시 수신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혼란을 최소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디지털 수신장치 변경, 채널재배치 홍보, 시청자의 채널 재설정이 적절히 이루어 져야 한다. 공동주택의 디지털 수신장치(Digital Processing AMP) 변경 및 조정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RAPA, DTVKOREA 등 관련기관들과 지상파방송사들도 지원하게 된다.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방송사들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TV/라디오 공익광고, 신문/인터넷 광고, 홈페이지 운영과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하단의 자막방송과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자세한 문의에 대해서는 콜센터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시청자들은 채널재배치 당일 TV가 수신되지 않으면 안내방송이나 홍보물의 설명에 따라 TV 리모컨으로 채널 재설정을 해야만 한다. 채널 재설정이 필요한 시청자는 채널 재배치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직접수신자에 한하며 재설정 방법은 TV 모델 별로 조금씩 다르다.

지상파 TV방송 디지털 전환 백서 발간



DTV KOREA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다양한 활동 내역을 담은 「지상파 TV방송 디지털 전환 백서」를 발간했다. DTV KOREA는 2008년 말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홍보효과가 큰 TV, 신문, 인터넷, 캠페인 등의 매체를 동시에 활용해 인지율과 보급률을 높였다. 2010년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는 TV 등 주요 홍보수단은 물론 디지털 전환 취약계층에 대한 개별 접촉으로 디지털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스스로 사전에 준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부지원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디지털방송콜센터를 운영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매년 2회씩 인지도보급률 및 수신환경 조사를 실시해 정부와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사업 및 홍보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됐다. 본 백서는 각 방송사 및 유관 행정기관, 시민단체 등에 배포돼 디지털 전환의 방향과 성과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널 재배치, TV 공익광고 및 신문광고 제작 현장에 가다.



DTV KOREA는 6월부터 전국을 3개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되는 채널 재배치를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공익 광고를 제작했다. TV 공익광고는 40초 분량으로 시청자들이 쉽고 빠르게 채널 재설정을 할 수 있도록 개그콘서트의 '나쁜 사람'팀이 출연해 재미있게 그려냈으며, 개그맨 유민상의 특유의 재치가 빛을 발했다. 신문광고는 예비신부인 가수 장윤정이 모델로 나섰다. 며느리 삼고 심은 연예인 1위로 꼽히는 장윤정은 채널 재설정 방법이 낯선 중·장년 및 노년층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기 위해 푸근한 미소를 선보였다. 공익광고는 채널 재배치 일정에 따라 권역별로 지역에 송출 및 배포될 계획이다.

DTV KOREA 체육대회 개최

6월 7일 한국방송회관 인근 안양천에서 DTV KOREA 직원들의 의기투합을 위한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주요 경기 종목은 족구로 4팀으로 나누어 토너먼트와 패자부활전 형식으로 경기가 진행됐다. 가장 먼저 결승 후보에 진출한 팀은 조1팀(기획홍보실 조현국 실장)이었다.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김4팀(직접수신인프라구축팀 김경훈 팀장)은 불굴의 투지로 패자 부활전을 거쳐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 직원들 투표로 선발된 MVP는 김윤지 사우이다. DTV KOREA 직원들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며, 2013년 시청자를 위한 지상파 플랫폼의 활성화와 직접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채널 설정 방법



가수 장윤정

아버님~

6월 12일 오후 2시 이후에 TV가 잘 나오는지 꼭 확인하세요~!

아날로그방송 종료 이후 디지털방송 채널재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안테나를 통해 방송을 보고 있는 가정은 6월 12일 오후 2시 이후에 일부 TV채널이 안 나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마세요!

리모컨으로 채널설정을 다시 하면 정상적으로 TV를 볼 수 있습니다.

• 유료방송에 가입된 TV는 채널 설정 없이 정상적으로 TV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려~ 꼭 기억해서 그날
확인해볼게. 고맙다!”



본 광고는 꼭 보관하셨다가 활용하세요.

“채널 설정, 알고보면 너무 쉽습니다.”

디지털TV 이용가구



- 1 TV 리모컨의 [메뉴]버튼을 눌러 **채널**항목을 찾으세요.
- 2 채널에서 **자동채널설정**을 찾아 [선택] 또는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 3 **자동채널설정**이 완료되면 [선택] 또는 [확인] 버튼을 눌러 종료하세요.

디지털컨버터+아날로그TV 이용가구



- 1 컨버터 리모컨의 노란색 [채널검색] 버튼을 누르세요.
- 2 **다시설정**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채널검색을 실행하세요.
※ 다시설정이 없으면 바로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 3 채널검색이 완료되면 메뉴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자동채널설정 화면은 제조사 또는 모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제조사로 문의 하셔도 됩니다.)